



박정호 사장이 주주들에게 모빌리티 사업 추진 의미와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脫 통신 행보 본격화

내달 '티맵모빌리티' 출범

모빌리티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 우버테크놀로지 2대 주주 참여

SK텔레콤의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분사해 만드는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가 내달 출범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미디어, 보안, 커머스에 이어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SK텔레콤의 탈(脫)통신 행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26일 오전 10시 서울을 지로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빌리티 사업부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81.64%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참석 주식 총수 99.98%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주총 승인으로 내달 29일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가 출범하게 된다.

이날 박정호 SKT 사장과 이종호 티맵모빌리티단장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모빌리티 사업 추진 의미와 비전을 주주들에게 소개했다.

박정호 사장은 "식사, 주거 외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게 교통이며, 우리 일상에서 모바일 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모빌리티"라며 "SKT의 ICT로 사람과 사물의 이동방식을 혁신하며 모빌리티 생태계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모빌리티 전문회사를 출

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경기권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플라잉카를 비롯 대리운전, 주차, 대중교통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표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다"며 "모빌리티사업이 SKT의 다섯 번째 핵심 사업부로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티맵모빌리티는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센트로폴리스에 자리한다.

지난달 SK텔레콤은 티맵모빌리티 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 확보에 나서기도 했다. 우선 SK텔레콤 소속 모빌리티 사업부내 내부 직원을 이동한 후 공개 채용된 직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사업단 규모는 약 250여명이다.

티맵모빌리티에는 세계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우버테크놀로지가 2대 주주로 참여한다. 아울러 양사가 공동 투자하는 조인트벤처(JV)도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우버는 여기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조인트벤처는 티맵모빌리티가 가진 T맵 택시 드라이버, 지도·차량 통행 분석 기술과 우버의 전 세계적인 운영 경험, 플랫폼 기술을 합쳐 혁신적인 택시 호출 사업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 측은 티맵모빌리티의 시장 가치를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향후에는 2025년 기업가치 4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을 목표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한진, 'Scale-Up 서비스' 출시

퀵배송 등 고객사 서비스 연결

한진은 '원클릭 택배서비스' 가입 고객사의 이커머스 사업 성장을 돕는 원클릭 'Scale-Up 서비스'를 새로 구축해 오는 12월 선보인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공유가치창출(CSV) 활동 일환으로 론칭한 원클릭 택배서비스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른 1인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 소규모 발송 고객이 합리적인 가격과 간편한 기능으로 택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원클릭 택배서비스는 현재 SNS 홍보와 입소문으로 론칭 1년만에 가입사가 1만3000개를 돌파하며 고객수와 물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진은 원클릭 고객의 물동량 및 판매채널 증가 등 이커머스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고객 대상 간단한 설문과 이용 패턴 등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뒤 전자상거래에 필

요한 서비스를 추천하고 연결해주는 원클릭 'Scale-Up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퀵·당일배송 ▲풀필먼트 ▲해외 판매 지원 ▲소품물 고도화 ▲쇼핑몰 통합관리 ▲부자재 구매대행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한진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14개 제휴사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진 노삼석 대표이사, 마케팅 총괄 조현민 전무와 제휴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진은 또 원클릭 택배서비스 론칭 1주년을 기념해 이날부터 12월15일까지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원클릭 신규 서비스명을 맞추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각 1명씩 공기청정기, 커피머신, 무선 이어폰을, 100명에게 커피·디저트 세트 모바일 교환권을 각각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테크놀로지, 승계 갈등 증폭 조희경 “조현범 사장 너무 큰 욕심”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조 이사장, 서면 인터뷰 진행
“평소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나 가족에 비밀리 하고 주식 매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남매의 난'이 더욱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26일 재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양래 회장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25일 언론에 성명 자료를 배포하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심판 관련 가사조사를 받고 나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남매의 난'이 더욱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26일 재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조양래 회장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25일 언론에 성명 자료를 배포하고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조양래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심판 관련 가사조사를 받고 나서다.

조희경 이사장은 지난 7월 조양래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23.59%를 차남인 조현범 사장에 매각한 직후, 조양래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한 인물이다.

조 이사장은 서면 인터뷰에서 조양래 회장이 평소 건강한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후견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가업을 승계하는 중요한 문제를 가족에 비밀로 하고 갑자기 차남에 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고 의문을 가졌다는 것이다.

조 이사장은 평소 조양래 회장이 누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

구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가정에서는 가족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이고 회사에서는 준법과 정도경영을 강조하는 경영자라고 설명했다.

또 사람이 사는데 지나치게 많은 돈은 필요 없고, 너무 많은 부가 한 개인에 집중되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어 가난한 사람과 부를 나눌 때 모두가 윈윈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회고했다. 돈을 낭비하지 말고 가치있게 쓰라는 말을 자주 했으며 본인도 검소하게 생활했다고 말했다.

공사 구분도 명확했다고 기억했다. 해외 출장에 부인을 동반하면 반드시 개인 카드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지시

했으며,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을 갔을 때 현지 지점에서 의전을 나오면 불호령을 내렸다고 성품을 떠올렸다.

특히 기업이 성장하려면 능력 있는 사람을 키우고 투자해야 한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신사옥과 연구소 건물을 조현범 사장 치적처럼 자랑하는 것에서 주변 인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조양래 회장 건강 상태에 의심을 하게 됐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의 승계 과정이 투명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조양래 회장 신념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었다는 주장이다.

조현범 사장에 대해서는 가족도 모르게 비밀작전하듯 갑작스럽게 주식을 매매하는 욕심까지 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조현범 사장이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중시하고 전문경영인을 발탁했던 조양래 회장과는 달리, 조현범 사장이 비리와 잘못된 경영 판단으로 금전적 손실과 한국타이어의 신뢰와 평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KT, IPTV 최초 글로벌 진출 성공... 태국서 상용 출시

태국서 '3BB 기가TV' 상용화

KT가 인터넷TV(IPTV) 최초로 글로벌 진출에 성공했다.

KT는 태국 3BB TV에 KT 올레TV 플랫폼 기술을 제공해 개발한 '3BB 기가TV'가 상용 출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태국 3BB TV의 IPTV 상용화는 KT가 IPTV와 OTT 솔루션, 콘텐츠 전송망 최적화 기술과 광고 및 추천 검색 서비스, 엔드-투-엔드 품질관리 등 IPTV 사업 전반에 관한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한 결과다.

사업규모는 240억원이다. 15개월간 20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으며, 방역을 이유로 현지 출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11개 파트너사와 화상회의, 원격제어 등의 기술로 시장 조사와 컨설팅, 플랫폼 개발과 시스템 테스트 등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이 무산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협업을 통해 한국 IPTV의 글로벌



KT 광화문빌딩에서 KT 임직원들이 태국 3BB사와 화상회의를 연결해 IPTV 런칭 순간을 함께 축하하고 있다. /KT

첫 진출 성공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이다.

KT의 IPTV 기술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장 조사를 통해 태국 현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기능도 추가했다. 우선 가족 구성원이 4명 이상이 대부분인 태국 가정환경을 반영해 하나의 TV에서 개인화 ID를 6개까지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열대성 폭우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태국 기후 특성상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할 때를 대비해 화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HBO 등 여러 개의 OTT를 함께 시청하는 현지 동향을 파악해 추가 로그인 없이 IPTV에서 OTT들에 접근할 수 있는 UI를 적용했다.

KT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미디어 산업의 성장과 비대면 글로벌 협력 경험을 기회로 삼아 이번 태국 IPTV 상용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속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삼성전자, 동절기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삼성전자서비스가 동절기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동절기 플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수리 엔지니어가 출장 점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 방문했

을 때 점검 요청 제품이 아니라도 추가 무상 점검 및 제품 사용 요령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한번의 방문으로 여러 제품을 점검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시간적 효과가 크다.

계절별로 맞춤형 사전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겨울에는 김치냉장고

와 세탁기에 초점을 맞춰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세탁기 동과 예방을 위한 설치위치 확인, 급/배수 호스 연결 상태 점검 ▲김치냉장고 김치 보관 및 온도 설정방법 안내 ▲드럼세탁기 배수펌프 잔수 제거 방법 안내 ▲전자동 세탁기 배수호스 점검 등 세탁기 결빙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